

투·타 부진... '류중일호' 프리미어12 첫 조기 탈락

오프닝 라운드 최종전서 호주에 5-2 승... 3승 2패 일본·대만 이어 B조 3위 3회 연속 결승 진출 무산

초대 대회 우승과 2회 대회 준우승 등 두 차례 프리미어12 출전에서 모두 결승 진출의 성과를 이뤘던 한국 야구가 3회 대회에서는 조기 탈락하는 수모를 겪으며 자존심을 구겼다.

류중일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 국가대표팀은 18일 대만 타이베이 헨투 야구장에서 열린 호주와 2024 WBSC(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 프리미어12 오프닝 라운드 B조 최종전(5차전)에서 5-2로 이겼다.

그러나 한국은 전날 일본과 쿠바, 대만과 호주의 맞대결 결과에 따라 잔여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슈퍼 라운드 진출이 무산된 상황이었다. 그저 이번 대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뒀다는 데서 의미를 둘 뿐이었다.

류중일호의 이번 대회 최종 성적은 3승 2패(승률 0.600)다. 각 조 상위 2개 팀에



한국 야구 국가대표팀이 지난 7일 고척스카이돔에서 2024 WBSC 프리미어12 출전을 앞두고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뉴스시스

슈퍼 라운드 티켓이 주어지는 오프닝 라운드에서 B조 3위에 그치면서 일본과 대만의 환호를 지켜봐야만 했다.

한국이 슈퍼 라운드에 오르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5년 1회 대회에서 김인식 감독 체제로 우승, 2019년 2회 대회에서 김경문 감독 체제로 준우승을 차지했으나 류 감독은 오프닝 라운드에서 탈락한 유일한 사령탑으로 이름을 남겼다.

이번 대회로 전임 감독 임기를 모두 마

친 류 감독의 재계약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류 감독은 이번 대회에서 2026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과 2028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을 대비한 세대교체를 위해 20대의 젊은 피들로 엔트리를 꾸리며 슈퍼 라운드 진출로 목표를 축소 설정했다.

하지만 대형 변수가 터졌다. 예비 명단 발표 직후 투수 문동주와 내야수 노시환이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고, 포스트

시즌 기간에는 투수 손주영과 원태인, 외야수 구자욱, 김지찬이 다쳤다. 개막 직전에도 내야수 김영웅이 이탈했다.

이에 더해 투수 박세웅과 내야수 김혜성, 강백호, 외야수 최지훈은 기초 군사 훈련으로 소집이 불가능했고 투수 이의리와 신민혁도 팔꿈치 수술을 받으면서 올 시즌을 일찌감치 마감한 상황이었다.

류 감독은 이 변수를 극복하기 위한 복안으로 '벌떼 마운드'를 택했다.

고영표와 광빈, 최승용, 임찬규로 선발

진을 꾸리면서 정해영과 최지민, 곽도규, 김서현, 김택연, 박형연, 유영찬, 조병현 등 정상급 필승조를 총출동시켰다. 4선발을 택하며 최종 엔트리에서 엄상백을 과감히 제외했다.

하지만 류 감독이 택한 4선발 체제는 사실상 실패였다. 네 명의 선발진은 다섯 경기에서 14.1이닝을 소화하는데 그쳤고 무려 9실점을 내줬다. 4이닝 이상을 소화한 투수는 쿠바와 2차전 당시 광빈이 유일했다.

선발진이 붕괴되면서 불펜 과부하도 피할 수 없었다. 최지민은 대만과 1차전에서 2.2이닝 동안 마운드를 지켜야 했고 곽도규는 대만과 1차전, 쿠바와 2차전, 일본과 3차전까지 3연투를 소화했다. 이영하와 김서현은 연투에 멀티 이닝까지 수행했다.

중심 타선 문제도 한국의 부진을 부채질했다. 3번 타자로는 김도영이 부동의 주전으로 기용됐지만 4번 타자와 5번 타자로는 윤동희와 박동원, 문보경, 나승엽, 송성문 모두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며 돌리판 기용에 그쳤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야구 천재' 김도영, 선수들이 인정한 올해의 선수 될까

내달 1일 리얼클럽 어워드 개최 포지션별 후보에 양현종·이우성 등 베스트 키스톤 박찬호·김선빈 도전

한 시즌 간 필드를 누빈 선수들이 직접 선정한 주인공을 가리는 '한국판 골드글러브' 리얼클럽 어워드가 개최되는 가운데 KIA타이거즈의 열두 번째 우승을 이끈 '야구 천재' 김도영이 올해의 선수로 인정받을까 주목된다.

사단법인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KPBPA)는 내달 1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2024 컴투스프로야구 리얼클럽 어워드'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리얼클럽 어워드는 감독과 코치, 관계자 투표 없이 오로지 KBO 리그 10개

구단 선수들의 투표만을 반영해 수상자를 가린다. KPBPA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820명의 선수를 대상으로 수상자 선정을 위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올 시즌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준 선수를 선정하는 올해의 선수상에는 대체 수준 대비 승리 기여도(WAR)를 기준으로 내야수 김도영을 비롯해 외야수 구자욱, 투수 원태인(이상 삼성), 내야수 김혜성과 송성문(이상 키움) 등 상위 다섯 명이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KIA에서는 △리얼클럽 선발투수 양현종 △리얼클럽 1루수 이우성 △리얼클럽 2루수 김선빈 △리얼클럽 3루수 김도영 △리얼클럽 유격수 박찬호 △베스트 키스톤 박찬호·김선빈이 도전장을 냈다.

한규빈 기자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단이 지난 16일(한국 시간) 쿠웨이트 쿠웨이트시티 자베르 알아흐마드 국제경기장 보조구장에서 팔레스타인과 2026 FIFA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6차전을 앞두고 회복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시스

홍명보호, 팔레스타인 꺾고 5연승 달리나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6차전 오늘 23시 중립지역 경기 개최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에서 5연승과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홍명보호가 팔레스타인과 중립지역 경기에서도 승리를 노린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오는 19일 오후 11시(한국 시간) 요르단 암만 국제경기장에서 팔레스타인과 2026 FIFA(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6차전을 치른다.

이날 경기는 당초 팔레스타인 원정 경기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여파로 AFC(아시아축구연맹)가 중립 지역 개최를 결정했고, 쿠웨이트에 이어 중동 원정 2연전이 성사됐다.

홍명보호는 앞서 지난 14일 열린 쿠웨이트와 5차전에서 3-1 승리를 거뒀다. 3

차 예선에서 4승 1무(승점 13)로 단독 선두를 굳건히 했고 2위 요르단(승점 8·득실 +4), 3위 이라크(승점 8·득실 +1)와 격차도 벌렸다.

승점뿐만 아니라 일정에도 여유가 생겼다.

쿠웨이트전 직후인 15일 휴식을 취한 뒤 16일과 17일에는 훈련을 진행하고 전 세계를 이용해 쿠웨이트시티에서 암만으로 이동했다. 이동 시간이 2시간여의 짧은 비행인 만큼 피로 누적도 최소화했다.

다만 팔레스타인은 복병이다. 홍 감독의 국가대표팀 사령탑 복귀전이기도 했던 지난 9월 1차전 홈경기에서 0-0으로 승점 1점을 챙기는데 그치면서 불안한 출발을 보인 바 있다.

홍명보호가 약체로 분류되는 팔레스타인전 무득점 무승부를 딛고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점은 긍정적이다.

오만과 2차전(3-1 승)을 시작으로 요르단과 3차전(2-0 승), 이라크와 4차전

(3-2 승), 쿠웨이트와 5차전(3-1 승)까지 4연승을 달리면서 아직 3차 예선에서 패배가 없다.

주장인 손흥민의 컨디션도 최고조에 올라 있다. 햄스트링 부상을 털고 돌아온 손흥민은 쿠웨이트전에 선발 출장해 자신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직접 마무리하며 복귀 득점까지 터트렸다. A매치 통산 50호 득점이라는 의미 있는 기록도 세웠다.

공격 진영에서 호흡을 맞출 톱 자원 경쟁도 치열하다. 오세훈은 최근 A매치 두 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했고 배준호도 쿠웨이트전에서 득점을 터트리는 등 최근 A매치 다섯 경기에서 2득점 2도움으로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주민규 역시 골 냄새를 맡는 감각이 뛰어난 선수다.

홍 감독은 최정에 전력을 앞세워 승리를 노릴 전망이다. 팔레스타인전에서 승리할 경우 각 조 2위까지 주어지는 북중미 월드컵 본선 티켓 획득에 8부 능선을 넘을 수 있다.

한규빈 기자

'화순의 딸' 임애지, 이름 딴 체육관 생겼다

女 복싱 최초 올림픽 메달 기념 하니움 복싱체육관 명칭 변경

2024 파리 올림픽 복싱 여자 54kg급(플라이급)에서 동메달을 차지하며 한국 여자 복싱 최초로 메달권 진입에 성공, 고향 화순의 명예를 드높인 임애지(25·화순군청)를 기념하기 위한 체육관이 생겼다.

화순군은 지난 15일 임애지복싱체육관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현판 제막식은 기존 하니움복싱체육관이 임애지복싱체육관으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마련됐다.

현판 제막식에는 임애지와 그의 가족을 비롯해 화순군청 복싱팀 선수단과 오형렬 화순군의장, 정형찬 화순군체육회장, 김태웅 화순군복싱협회장 등이 자리를 빛냈다.

화순에서 태어나 화순중과 전남기술과 학교, 한국체대를 거치며 복싱 선수의 꿈

을 키운 임애지는 지난 2022년 1월 화순군청 복싱팀 창단과 함께 계약을 맺고 고향에 돌아왔다.

임애지는 지난 6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복싱 2차 세계 예선 대회 여자 플라이급에서 상위 4인에 들며 2020 도쿄 올림픽에 이어 2회 연속 본선 진출의 쾌거를 이뤘다.

이어 지난 7월 막을 올린 본선 무대에서는 16강과 8강에서 각각 타티아나 레지나드 해수스 사가스(브라질)에 4-1, 예니 마르셀라 아리아스 카스타네다(콜롬비아)에 3-2로 판정승을 거두며 동메달을 수확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이번 임애지복싱체육관 현판 제막식이 우리 화순군청 복싱팀 선수들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화순군이 복싱의 고장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화순군이 대한민국 복싱을 선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규빈 기자